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0호 【루계 제23132호】 주체99(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치솟는 적개심을 안고 조국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을 더 힘있게!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계속 전진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광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광부들은 다량채굴, 다량락광, 다량처리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채굴장들마다에서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여 선광장들에 많은 광석을 보내주어 정광생산을 늘이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심부지구와 상부지구의 광산들에서 광산별, 갱별, 소대별사회주의경쟁운동이 치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20일현재 1개의 소대가 년간계획을, 70여개의 소대가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갱건설사업소와 보수갱에서도 상반년계획을 20일이상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 막장들에 들어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적인 생산량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금골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언제나 위훈창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금골광산에서는 13수직갱의 광석바가지를 새로 교체하여 심부에서 캐낸 광석을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고 광물생산을 더욱 힘있게 내밀고있다. 지난 5월 20일현재 년간계획을 102.6%로 앞당겨 수행한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채광소대원들과 지난 4월말현재 상반년계획을 두달이상 앞당겨 끝낸 김용일채광소대, 영광갱 우승환채광소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5월말현재 상반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끝낸 안정민채광소대원들도 높은 목표를 세우고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승리갱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굴진과 채준, 채광 등 계획을 지표별로 끝내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검덕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걸린 문제를 자체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면서 품위가 높은 광석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상반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한 박호철채준소대, 최광성굴진소대원들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일 높은 광물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상부지구에 자리잡고있는 남풍광산에서 혁신의 발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남풍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전차갱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부쩍 올리고있다. 그들은 전차와 광차관리, 로반관리를 잘하여 전차와 광차들을 만가동시킴으로써 매일 수천t이상의 광석을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상반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낸 남갱 오승철채광소대를 비롯하여 여러 소대들에서 집단적혁신이 창조되고있다.

7.1갱과 4.5청년전차갱, 갱건설사업소와 보수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광부들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2선광직장과 3선광장에서는 광석을 다량처리하며 그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농사는 천하지대본

◇ 남흥에서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있다.

얼마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출하직장의 적재장에 가득히 쌓여있는 비료더미를 보시고 이제는 농촌에 많은 비료를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주체비료를 받아안은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비료를 쓰게 되였으니 풍년은 문제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 장군님께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며 온 나라가 농촌을 돕도록 해주신 현명한 령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 강성대국건설에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입니다.》

천하지대본이 세상에서 제일 기본으로 되는 큰일이라는 뜻처럼 강성대국건설에서도 농사가 바로 천하지대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년간 농촌들을 찾고찾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이라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쌀이자 사회주의이며 강성대국이다. 나라 쌀독이 넘쳐나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보다 활성화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당겨 열수 있다.

◇ 모든 힘을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한다.

얼마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올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업전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국, 전민이 농사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사회주의대지에 애국의 뜨거운 구슬땀을 다 바쳐야 한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집단적혁신으로 본보기단위들을 따라잡기 위한 맹렬한 추적전을 벌려 올해에 기어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여야 한다. 주체농법을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여 정보당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농사는 천하지대본임을 명심하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힘껏 지원하여야 한다.

모두가 《우리 나라를 쌀이 넘쳐나는 나라로, 쌀이 남아돌아가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받들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뜻깊은 10월의 대지에 오곡백과 설레이게 하여야 한다.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총공세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려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6월 24일현재 련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이 세운 상반년 석탄생산과 기본굴진, 준비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화풍, 룡림, 립석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전망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내세웠던 전투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돌파되였다. 그리하여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석탄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채굴장정비,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켰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안주속도》를 창조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막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상반년기간에 립석, 룡림탄광에서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고 화풍탄광에서도 드넓은 채굴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석탄생산에서는 신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앞장에 섰다.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5월 중순에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풍, 립석, 청남, 룡림, 태향, 칠리탄광의 탄부들도 5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6월에 들어와서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상반년기간에 내세운 석탄생산목표를 기한전에 돌파하였다. 특히 칠리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리면서 전망이 좋은 새 갱개발전투를 힘차게 벌려 수십만t능력의 채굴구역을 새로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여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돌파할 결의드높이 10월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문천강철공장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문천강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당조직에서는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들끓는 현장들을 맡고 내려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특히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는 사업을 잘하였다. 공장에서는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제강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쇠물량을 늘일수 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만도 이들은 기술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전기로의 제강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새로운 자동조종장치를 받아들여 강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내밀기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압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각종 규격의 환강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생필직장에서도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상반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멸적의 기상안고 강철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쇠돌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반미군민대회 진행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반미군민대회가 28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전쟁사상 류례없는 인간살륙만행을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며 반미성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전투적기상이 담긴 함성이 연방 터져나왔다.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치자!》, 《반미대결전에서 영웅조선의 본때를 보여주자!》 등의 구호판들과 반미반괴뢰주제의 선전화들이 대회장들에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은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평안남도에서

평안남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홍인범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군관 김창복,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지배인 신원일,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안주시 송학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순녀,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도청년동맹 1비서 김병철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0년전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방대한 병력과 막대한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야만적인 살륙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전쟁기간 안주시, 개천시, 순천시, 숙천군, 평원군을 비롯하여 침략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거리와 마을, 공장과 농촌들이 재더미로 변하였다고 격분에 넘쳐 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성전에 용약 떨쳐나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의 불패의 위력의 힘있는 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망각한 미제가 오늘도 남조선에 틀고앉아 해마다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제가 리명박역적패당을 내세워 괴뢰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우리와 련계시키면서 그 무슨 《대응》과 《제재》를 떠들며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망동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 못할 도발이며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원쑤격멸의 의지를 지니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게 함으로써 영웅조선의 기상을 다시한번 떨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로배권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허성일,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황해남도직맹위원장 강규상,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신천군 새날농장 관리위원장 리혜숙,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제원해주농업대학 학생 리철남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를 저지른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끓어번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가 방대한 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미쳐날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국땅을 피로 물들인 미제승냥이들이 황해도(당시)에서 인간살륙전을 벌려놓고 신천땅에서만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군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3만 5 000여명의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보위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미제는 무릎을 꿇고야말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미제의 침략야망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최근 적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이라는 모략극까지 날조하고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그들은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며 만일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연설자들은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특히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 당창건 65돐을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최룡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리경원,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영록,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도농근맹위원장 정명신,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강건사리원의학대학 초급청년동맹비서 왕명근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야수들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온 나라를 초토화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전대미문의 악행으로 강점지역들을 피로 물들이였다고 말하였다.

살인마들이 사리원지역의 무고한 주민들을 미라산에 끌고가 기관총사격으로 죽인것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간살륙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15개 추종국가 고용병들까지 동원하여 공화국을 집어삼키려고 날뛰였지만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미제가 오늘도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도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괴뢰함선침몰사건이라는 날조극을 꾸며내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망동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며 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동원하여 질좋은 소비품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도내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립장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뜻깊은 올해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원쑤들이 끝끝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를 두고 다져온 복수심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강도에서

자강도반미군민대회에서는 박도춘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연설에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 림광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강계시 고영협동농장 농장원 김영실, 강계제1사범대학 학생 신경일 등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지금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평화롭던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운 철천지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제침략자들이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강계시를 비롯한 도시와 마을들을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희천시와 초산군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데 대하여 끓어오르는 격분을 표시하였다.

미제는 오늘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미제가 리명박역적패당을 부추겨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로 몰아넣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제야말로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일삼아온 백년숙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내 기계공장들의 CNC화를 다그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든 농사일을 알심있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의 위력으로 반미성전에서 백승을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들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이어 대회참가자들은 전쟁광신자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갈 굳은 의지를 안고 반미시위를 벌리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위대한 향도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65년

선군의 기치높이 번영을 수놓아온 자랑찬 년대기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전례없는 비약을 창조해가는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무적의 군력으로 승리를 떨쳐가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를 가슴후덥게 절감한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마련, 북방의 철의 기지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 CNC기술에서의 최첨단돌파, 나라의 현대적인 대화학기지로 전변된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쏟아져나오는 비날론폭포, 남흥의 비료폭포…

강성대국의 승리가 한눈에 바라보이게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한 자랑찬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총대의 위력으로 온갖 광풍을 길들이며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하는 오늘의 대고조는 선군사상을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장장 65성상 백승의 위력을 떨쳐온 우리 당력사의 영광스러운 축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 선군정치의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로동계급의 당의 투쟁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 치렬한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군사는 당과 혁명의 승패,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혁명을 령도하는 당이 승리할수 있고 승리한 당과 혁명을 보위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굳건히 담보해나갈수 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무장대오부터 조직하시고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을 해방한 다음 당도 국가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혁명령도를 떠나 백전백승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군사문제를 중시하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력사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주체38(1949)년 2월 15일 내무성(당시) 산하 각급 단위책임일군회의에 참석하시여 해방후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제반 민주개혁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에게는 조선로동당이 있고 튼튼한 인민정권이 있으며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인민군대와 내무기관이 있다. …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영웅조선, 주체조선의 존엄을 누리에 떨친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군사상과 령도의 손길아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특히 우리 당은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 10여년간 혁명과 건설에서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려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로 승승장구하는 당, 인민의 리익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뿐아니라 혁명의 총대를 앞세워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당으로 강화발전된 여기에 우리 당의 백승의 위력과 높은 존엄이 있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당의 존엄을 누리에 더욱 높이 떨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은 참으로 위대한것이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우리 당을 그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성스러운 로정인 동시에 선군의 기치밑에 백승을 떨쳐나가는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시고 그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치신 영웅적위훈의 빛나는 년대기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1960년대에 벌써 총대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오시였다.

우리는 오늘도 주체58(1969)년 1월 19일 **《인민군대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던 위대한 선군령장의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의 군사로선을 관철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에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렇듯 탁월한 령도가 있어 우리 인민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부강번영의 년대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고 그처럼 어려웠던 1990년대의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리 달려 사회주의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고 세기적인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은 하루하루가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아래 우리 당의 위력이 백배로 과시된 격동적인 나날이였다.

우리 혁명이 헤쳐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련과 난관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남들같으면 아마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을뿐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비약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하다면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을 창조한 그 거대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선군, 선군정치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총대를 앞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담아 선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가슴치며 울려온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여야 한다. 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다!

얼마나 위대한 혁명철학인가.

혁명군대를 조국보위수단으로만 보고 정치의 주도세력으로까지 보지 못한 지난 시기의 리론들과는 달리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승리자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었으며 그 나날에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백배해질수 있은것 아니였던가.

무더운 여름이나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명절이나 휴식일도 가림없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원쑤들이 몰아오는 광풍은 산산이 흩어졌으며 우리 당은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3년전 당창건기념일에도 조선인민군 공군부대를 찾으시여 그곳 장병들과 함께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장병들에게 자신께서는 이번 당창건기념일에 어느 부대를 찾을것인가를 많이 생각하다가 조국의 령공을 굳건히 지키고있는 공군부대에 나와보기로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창건기념일에 병사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중에 차넘친것은 혁명의 총대로 당의 위업, 주체의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실 굳은 의지였다.

당의 위업수행에서 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겹쌓이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는 우리 당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선군정치를 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구현하여오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오늘의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것이다. 나는 조국과 혁명,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선군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것이며 이길에서 우리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쳐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사회의 혁명적변혁이 힘있게 추진되고 사회주의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있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전적으로 정치와 군사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총대중시사상과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총대를 앞세워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더듬어볼수록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긍지로 가슴은 뜨겁게 설레인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혁명무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방선은 금성철벽의 사회주의보루로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위용을 떨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치고있는것 아니랴.

현실은 당의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혁명무력을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위력하고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필승불패의 군력과 가장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미제와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수 있었으며 강성대국의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은 그대로 우리 당의 빛나는 승리의 로정이며 장군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자욱자욱에는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영웅서사시가 아로새겨져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준엄한 시련을 뚫고 희망찬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을 돌이켜보는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신념이 꽉 차넘친다.

어찌 우리 군대와 인민뿐이랴.

국제사회계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방식을 진보적인류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주는 시대의 가장 훌륭한 정치방식으로 격찬하고있다.

그렇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어 조선로동당은 총대로 개척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선군혁명의 향도적기치로 날이 갈수록 누리에 더욱 빛나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총대를 앞세우고 강성대국승리의 령마루로 힘차게 줄달음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화속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빛나는 령도, 격동적인 현실

사회주의위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당의 혁명적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의 생명선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절세의 위인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기에 이 땅에는 얼마나 가슴벅차고 격동적인 현실이 눈부시게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해전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출품된 프로그람들을 돌아보실때였다.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할 가치있는 프로그람들이 출품된 전시회는 당의 령도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프로그람기술의 자랑찬 면모의 일단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전시품들을 돌아보시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드높은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에 의하여 프로그람기술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 당의 령도에 의하여 콤퓨터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된데 대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비약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극진한 보살피심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나라의 과학기술은 얼마나 경이적인 소식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는것인가.

푸르른 저 하늘에서는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 쏟아져내리는 비날론폭포, 비료폭포로 사회주의승리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북방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영웅적로동계급이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면 그이의 불멸할 현지지도자욱과 더불어 성강, 황철을 비롯한 주체철생산기지들과 희천발전소건설장,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들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예술공연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의 혁명적예술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기느라면 공훈국가합창단, 만수대예술단, 국립교향악단, 은하수관현악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단체들과 영화, 연극, 교예분야에서 우리 당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모습이 우렷이 떠오른다.

두차례에 걸치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그려보게 하는 희한한 축포야회들, 온 나라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선 크고작은 수력발전소들과 개건된 공장, 기업소들, 대동문영화관,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한 훌륭한 인민의 문화 및 봉사기지들, 함주군 동봉땅이며 한드레벌에 펼쳐진 사회주의 푸른 전야와 조국의 대지를 늘여가는 대계도간석지의 자랑…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낮과 밤을 보내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자욱이 얼마나 뜨겁게 슴배여있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려는 우리 당의 불멸할 령도가 얼마나 소중히 깃들어있는것인가.

당의 령도는 옳바른 투쟁전략과 전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기어이 결정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스럽게, 떳떳이 들어설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혁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한 로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제끼시려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신념의 선언이며 천만군민을 대고조진군에로 산악같이 일떠서게 하는 애국의 호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며 주체년호로 빛나는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자면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과 력사적뿌리,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할 정신력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경제강국건설의 당면한 투쟁목표들과 경제전선과 사상문화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투철한 혁명성과 심오한 과학성으로 일관되고 무비의 담력과 비상한 열정이 맥박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은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날이 갈수록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1년은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정당성이 힘있게 과시된 나날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강의한 정신력을 발휘하였으며 선군천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왔다. 천만군민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키며 불굴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오는 나날에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이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졌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였다. 우리의 CNC기술이 세계의 최첨단을 돌파하고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였으며 주체섬유와 주체비료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대동강기슭에 세계적인 대규모과수종합농장이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고있는 희한한 현실들은 로작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로작은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을 집대성하여 밝힘으로써 천만군민에게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안겨준 불멸의 총서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으며 민족마다 자기의 고유한 정신과 전통, 넋과 숨결이 있다.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정신을 똑똑히 알고 강의한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는 인민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솟구쳐오를수 있으며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다.

민족의 정신력에 관한 사상리론은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시며 희세의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중대한 리론실천적문제로 제기되고 완벽하게 해결되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으로 된다는것을 론증하시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밝힌 여기에 로작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근본바탕을 두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억센 뿌리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일심단결의 정신력,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력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대고조진군에서 우리 인민이 높이 발휘하여야 할 정신력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정신적특질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던 불굴의 정신력이 총분출하게 되였으며 대고조진군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게 되였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충천한 기세와 열정으로 150일전투, 100일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여기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대고조의 승리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리고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량심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겠다는 전투적기백, 우리의 멋이 있는 세계적인것을 창조하겠다는 영웅적기상,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무릉도원을 일떠세우겠다는 혁명적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서 우리 조국의 모습이 날마다 변모되고있다.

비약과 변혁으로 들끓는 벅찬 현실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분출시켜나갈 때 강성대국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로작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강령적문헌이다.

과학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에 옳바른 투쟁목표와 전략전술이 안받침될 때 어떤 시련과 고난도 뚫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작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고조진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목표와 투쟁과업들을 환히 밝힌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한 강성대국건설대강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최후돌격전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천명하시고 당면하게 점령하여야 할 전투목표와 투쟁과업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고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록, 새로운 속도를 창조해나가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나라의 경제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이다.

대고조의 최전선인 국방공업앞에 나선 투쟁과업으로부터 경제전선과 사상문화전선, 인민군대의 투쟁과업에 이르기까지 환히 밝힌 로작은 강성대국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로작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는 과정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인민경제가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핵융합반응을 성공시킨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이 선군시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은 로작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로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현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은 곧 빛나는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시는 웅대한 설계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는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로작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대적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계속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대고조진군은 모든 전선에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강성대국건설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거창한 위업이다. 비약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전진할 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수 있으며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오를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원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용맹한 결사대, 적극적인 선봉대, 능숙한 선동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청년들이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이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송풍기적역할을 할데 대한 문제, 일군들이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고조진군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로작에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방도들이 뚜렷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질풍같이 달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지난 1년동안에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온 각급 당조직들과 경제조직사업을 대담하고 치밀하게 진행하여온 일군들의 역할이 깃들어있다. 지금 모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당원들과 청년들이 전위투사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것은 로작의 정당성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혁들이 련이어 일어나는 벅찬 현실을 체험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이야말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있기에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낄것이다.

정 선 철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북청군 청흥리당조직에서 농장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이 아침모임시간과 작업의 쉴참에 농장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에게 해설해주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조직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주체60(1971)년 4월 농장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물파밭을 돌아보시며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신데 대해 감동깊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농사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당원들과 농장원들로 하여금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알곡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안 국 심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총공세의 불길높이 농작물가꾸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영광의 땅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룡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서해곡창 룡천군안의 협동벌들에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얼마전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전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을 만풍년으로 빛나게 장식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장산협동농장에 가보아도 좋고 장군님께서 본보기로 높이 내세워주신 신암협동농장에 가보아도 좋다. 모든 논밭이 말그대로 꽃밭처럼 알뜰히 가꾸어진 산두협동농장이며 쌍학협동농장, 아니 군안의 그 어느 협동농장에 가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쌀로써 빛내여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애국열의가 한껏 넘쳐난다.

7월초까지 논밭 다섯벌김매기와 비료심층시비를!

이것은 모내기가 끝나갈무렵 군일군들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였다. 헐치 않은 목표였다. 하지만 물러설수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사는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장벌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드세찬 열풍을 일으켰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산협동농장 포전을 다녀가시였다는 소식을 들은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장산협동농장을 찾으신 그날 어느 포전을 보나 하나같이 꽃밭처럼 알뜰하게 가꾸어졌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알곡생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는 농장원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군책임일군들과 협동농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농장원들의 심장마다에 깊이 심어주면서 당면한 김매기전투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정신력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장산협동농장 두벌농사포전에 가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아주신 한포기한포기의 곡식마다에 보답의 구슬땀을 바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자고 농장원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군책임일군의 열정넘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리고 룡송협동농장 포전에 가면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앞장에서 김을 매며 실천적모범을 보이는 농장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일군들모두가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 배심으로 농작물비배관리가 한창인 농장포전들을 타고앉아 김매기전투를 지휘하였다.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전투를 지휘하느라, 장산협동농장과 신암협동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우랭이에 의한 논벼비배관리면적을 더욱 늘이기 위한 면밀한 대책을 세우느라 군일군들의 발걸음은 농장벌에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령도업적단위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신암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김매기와 비료주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장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전화의 나날처럼 《밭갈이노래》를 높이 부르며 김이 아니라 흙을 매는 심정으로 농작물비배관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장산협동농장현지지도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켜 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낳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장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김매기전투계획 매일 150%이상 수행, 군적으로 논밭 세벌김매기를 제일먼저 끝낸 신암, 쌍룡, 산두협동농장들에서 네벌김매기에 력량을 집중…

그뿐이 아니다. 논벼비배관리를 깐지게 한 덕흥협동농장포전들에서 다수확품종의 논벼아지수가 최고수준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알곡증산으로 빛내이자고 선군대지에 애국의 구슬땀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만이랴.

견일협동농장에서도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김매기와 비료주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풍요한 가을은 절로 오지 않는다면서 알비료성형기를 만가동시켜 생산한 질좋은 유기질복합알비료의 심층시비를 깐지게 하는 룡송, 룡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도 좋지만 여러가지 대용비료를 많이 만들어 강냉이밭에 듬뿍 줌으로써 검푸른 강냉이바다를 펼친 산두, 쌍학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대견한것인가.

협동벌에 휘몰아치는 비약의 열풍, 그것은 선군대지에 창조와 위훈의 구슬땀을 바쳐 나라 쌀독을 가득 채워 강성대국의 그날을 앞당겨올 군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여서 그리도 뜨겁고 거세찬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큰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7~8월은 장마철이다. 큰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농작물을 애써 잘 키웠다고 해도 큰물피해로 논밭이 물에 잠기거나 센 바람에 곡식이 넘어지게 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웅근소출을 낼수 없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미리막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논밭과 물길, 저수지를 비롯하여 장마철에 피해를 입을수 있는 대상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방의 약한 곳은 보강하고 급인돌이에는 잔디나 돌을 입혀 그 어떤 큰물이 나도 강하천이나 물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큰물에 논두렁이 터지지 않도록 잘 다지는것과 함께 밭머리도랑을 째거나 가져내여 산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밭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농작물이 큰물과 센 바람에도 피해를 입지 않게 후치질을 깊숙이 하고 북을 돋구어주어야 한다. 강냉이밭둘레에 새끼줄을 든든히 둘러침으로써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한다.

북부고산지대 농촌들에서는 장마철감자밭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여 감자역병을 비롯한 병해충, 습기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고인물빼기양수설비들을 잘 갖추어놓는것이 중요하다.

각지 농촌들에서는 장마철에 비물이 고이는 곳에 고인물빼기양수기를 배치하고 수리정비를 잘해놓아야 한다.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전기시설도 완비하며 시운전도 미리 해보는 등 물이 고이면 제때에 퍼낼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은 큰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사업의 성과가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한다.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하며 제방보수를 비롯하여 큰물피해를 막는데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근로자들인것만큼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졌다는 주인된 자각을 안고 한포기의 곡식도 큰물이나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논물관리공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공들은 논두렁과 물고상태를 자주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미리막음으로써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10월의 대축전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여야 한다.

강냉이밭김매기를 질적으로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 강냉이밭 네벌김매기를 마지막고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모든 포전을 꽃밭처럼 가꾸고있는것도 좋지만 후치질로 강냉이포기마다 북을 주어 김매기성과를 확대해나가면서 가물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게 하고있는것은 더욱 자랑스럽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장들에서는 로력과 영농수단을 총동원하여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냉이밭 애벌김매기를 앞둔 때에 농장에서는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협의회가 있었다.

그때 농장일군이 후치질을 하여 강냉이포기마다 북을 돋구어주고 밭고랑을 깊숙이 파주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하면 김매기속도를 높이면서도 강냉이포기들의 가물피해를 막는것은 물론 비물이 쪽쪽 빠져 큰물피해도 받지 않게 되여 더욱 좋았다.

혁신적인 안이였다.

농장에서는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일군들이 작업반을 맡고나가 뜨락또르정비를 빈틈없이 하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를 안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자는 농장일군들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나선 농장원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나갔다. 김매기가 시작되자 작업반포전들에서 뜨락또르들의 동음이 높이 울리였다.

청년제6작업반의 농장원들이 강냉이밭김매기에서 앞장섰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강냉이밭후치질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운전수들은 뜨락또르정비를 깐지게 하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후치질실적을 올리였다.

농장원들은 이랑을 타고나가면서 흙덩어리를 부스러뜨려 강냉이포기마다 북을 듬뿍듬뿍 주었다. 제1작업반에서도 세벌후치질을 하고 네벌김을 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로력과 농기계 등을 김매기에 집중하였다.

제3, 2, 12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뜨락또르와 부림소를 잘 배합하여 후치질을 질적으로 해나갔다. 후치질로 북을 돋구어준 결과 김매기를 헐하게 하면서도 그 질을 높이게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포전에서 진행된 기술학습

은천군 마두협동농장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얼마전 아침이였다. 벼포기들이 푸르싱싱 자라는 포전들을 돌아본 마두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제부터 가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업은 어떤것인가.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초급일군들과 마주앉았다. 지난 시기의 경험들을 분석종합하면서 집체적지혜를 합치니 좋은 안들이 나왔다. 그중의 하나가 논물관리문제였다. 지난 몇해동안의 농사경험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분조들인 경우 하나같이 논벼의 생육상태와 일기조건에 맞게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런 분조의 논물관리공들은 책임성이 높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기술적준비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었다.

논물관리공들을 기술적으로 잘 준비시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농장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을 위한 기술학습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농장기사장이 이 사업을 도맡아나섰다. 그의 발기로 포전에서 기술학습이 진행되였다. 모살이가 끝나고 아지를 치는 시기의 물대기방법, 높은 온도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염기가 있는 포전들에 대한 물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기술학습은 논물관리공들의 호평을 받았다. 논물관리공들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여 논물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갈 결의를 다지고 실천에 옮겨나갔다.

농장일군들은 모범적인 논물관리공들의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였다. 그 실효는 컸다. 논물관리공들은 포전별로 물을 대고 뽑은 날자와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부지런히 논두렁을 밟고 물고를 열고 닫으며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제1작업반과 청년분조의 논물관리공들, 이들은 벼의 생육상태와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땅의 성질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논물관리를 주인답게 해나갔다. 어찌 이들뿐이랴. 제5, 3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여러 작업반논물관리공들도 뜻깊은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로 과학적인 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올해에 기어이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10월의 광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는 이곳 일군들과 논물관리공들의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밀거름되여 포전마다 벼포기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꽃밭처럼 알뜰히

대흥군 광통협동농장 농장원들

대흥군 광통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강냉이밭김매기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매기를 잘하여야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킬수 있고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습니다.》

지난 어느날 강냉이포전들을 돌아보던 농장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한것은 농장의 강냉이포전들이 거의나 경사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농기계를 리용하여 후치질을 하기가 매우 불리했던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때 농장일군인 리청룡동무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부림소를 리용하여 후치질을 합시다. 1950년대의 애국농민들처럼 일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일군들모두가 지지해나섰다. 농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였기때문이였다. 사실 부림소들만 잘 리용해도 강냉이포전들에 대한 후치질을 얼마든지 계획대로 내밀수 있었다.

농장일군들은 신심에 넘쳐 작업반들에 내려갔다. 부림소관리공들과 무릎을 같이한 일군들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알려주면서 강냉이밭후치질을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제3작업반원들의 일본새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작업반장 신동준동무는 부림소관리공들이 높은 책임성을 안고 강냉이밭후치질에서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작업반장이 앞장에 서서 부림소를 몰며 후치질을 해나가자 부림소관리공들모두가 더욱 성수가 나서 맡은 일을 다그쳐나갔다.

제2작업반의 초급일군들은 작업반원들에게 1950년대 애국농민들처럼 일해나가자고 하면서 강냉이밭후치질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포전들마다에서는 강냉이포기들이 날이 갈수록 서로 키돋움하며 자라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목표는 전망성있게, 실천은 끝장을 볼 때까지

대동강가구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얼마전 대동강가구공장이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별로 소문없던 이 공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때로부터 10여년사이에 이렇듯 눈부신 성과를 거두게 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직무에 완전히 정통하고 모든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깐깐하게 조직전개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갈줄 알아야 합니다.》

공장초급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시작한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였다. 초급당비서 리윤길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방도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본때있게 벌리는데서 찾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우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여기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것은 결의목표를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전망성있게 세우도록 한것이다.

처음 결의목표를 세울 때 편향도 없지 않았다. 현실성이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에 전망성이 약화된것이였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초급당비서는 앞으로 2중,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 때까지 전망성있게 결의목표들을 세우도록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계발시켰다. 이렇게 되여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보다 변모될 공장의 래일을 내다보며 건물들을 개건하고 설비들을 현대화하는 등 통이 큰 목표들이 결의목표에 반영되게 되였다.

특히 기술인재양성사업과 같은 결의목표는 한두해사이에 해결되지 않는것만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본격적으로 벌리던 시기부터 먼 앞날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세웠다. 그리고 공장의 일군들이 혜산농림대학의 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공장에 현지학습반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매해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여러명씩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착실하게 배울수 있게 조건보장사업을 안받침하였다. 그리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해서만도 50여명의 기사들을 키워냈으며 현재도 20여명의 로동자대학생들이 망라된 현지학습반을 계속 운영하고있다.

이 나날에 공장의 기사, 기수대렬은 종업원수의 70%이상에 이르게 되였으며 그들이 공장의 현대화와 가구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일단 전망성있게 세운 결의목표를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실천해나가는 투쟁기풍이다. 이 공장에서 결의목표를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게 된것은 초급당일군의 실력이 그 누구보다 높은데도 있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하는데서 초급당비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초급당비서가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해나가자면 정치사상적수준과 기술실무수준이 높아야 하는것이다.

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초급당비서가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대중운동을 이끌어왔기에 자기들이 10여년동안에 3중3대혁명붉은기까지 쟁취할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초급당일군은 그 어디를 가도 비품들과 가구들에 늘 눈길을 돌리고 새로운 가구도안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보면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고있으며 설계원들에게 자주 찾아가 가구설계에 대한 조언도 많이 주고있다. 설계원들은 오랜 현장경험과 재능을 가지고있지만 초급당일군이 내놓군 하는 착상을 놓고 늘 감탄하고있다.

이렇듯 당일군이 높은 실력을 소유하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이끌어왔기에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 5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한면장식합판에 의한 생산공법의 갱신, 수평제재기에 나무굴개장치 및 유압회로의 설치, 생산과 경영활동의 콤퓨터화 등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60여건이나 받아들여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훨씬 개선하였으며 경영활동을 과학화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리고 이 나날에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여 나날이 흥하는 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결의목표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현해나가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생산자대중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 초급당위원회가 가장 깊은 관심을 돌린 문제의 하나가 작업반당세포들에서 매달 진행하는 결의목표수행정형총화사업이 대중의 높은 열의속에 진행되도록 한것이였다.

작업반에서 수행하게 된 결의목표들을 한조항씩 따져보며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여왔는가를 되새겨보면서 초급일군들과 로동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에 등록할 대상들을 추천하는 사업도 하고 다음달에 실현해야 할 결의목표와 그 수행방도도 진지하게 토의하고있다. 그리고 결의목표수행에서 모범적인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앞세우면서 물질적자극도 적절히 배합해나가고있다. 이 사업이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관심속에 정상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여나가는 나날에 공장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누구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대중운동에 적극 뛰여들게 되였다.

이와 함께 초급당위원회는 현장기술협의회를 자주 조직하여 생산장성의 예비를 찾아내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리였다. 이 협의회에서 대중의 창조적지혜가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이 토의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가구제품의 질이 개선되게 되였으며 재능있는 가구설계원들이 배출되고 능력있는 공장의 일군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기사장 최명주동무를 비롯하여 이 공장의 거의 모든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오래동안 이 공장에서 일해온 현장경험이 풍부한 로동자출신들로 꾸려져있으며 종업원의 대부분도 오랜 기술자, 기능공들이다. 이들은 기술혁신안을 창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쩍 높여왔던것이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게 한것도 대중운동을 근기있게 벌리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한개 단위를 뜨거운 혁명적동지애가 차넘치는 집단으로 되게 하는데서 일군들, 특히 당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공장 초급당일군의 뜨거운 인정미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속에 집단과 동지를 위하는 마음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훌륭한 본보기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정치적신임과 사랑속에 로력영웅으로 자라난 그는 언제나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종업원들을 이끌어나감으로써 공장안에 집단적혁신, 대중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공장의 한 젊은 기술일군을 기술혁신의 명수로 키워주어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도록 품을 들여 이끌어준 사실이며 한 설계원의 병치료를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그가 가구설계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떨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줌으로써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진정을 다 쏟아부어온 사실 등을 비롯하여 초급당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자면 끝이 없다.

초급당일군의 뜨거운 진정은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당일군의 이런 인정미는 불씨가 되여 공장안에 집단주의정신, 혁명적동지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며 그 과정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수행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되였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사업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능률높은 분무기를 만들기까지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대에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고 생산이자 과학기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강서분무기공장은 질좋은 배낭식분무기생산을 잘하는것으로 소문난 단위이다. 여기에는 지배인 리효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에 청산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농장원으로 일하던 리효욱동무는 기술혁신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 농약살포를 미립화하여 농업부문에서의 농약뿌리기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려는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후 농장당조직의 추천에 의해 농업과학연구기관의 박사원에 들어가 창조적재능을 더 활짝 펼치면서 미립분무기에 대한 연구에 특별한 힘을 넣었다.

그는 미립분무기를 연구도입하는 과정에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하는것이 배낭식분무기라는것을 알고 이미 학술적성과까지 거둔 미립분무기대신 배낭식분무기를 대량생산공급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달라붙었다. 이 문제를 풀자니 화학, 수지가공공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였고 수십가지의 각종 형타를 설계제작해야 하는 등 많은 품을 들여야 했다.

박사원을 졸업하고 어느 한 단위에서 일하던 그는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여러 공장들에 나가 때로는 밤을 밝히면서 배낭식분무기연구완성에 고심어린 노력을 바치였다.

현실에 실지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몇해동안 불같은 정력을 기울인 그는 마침내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고 성능이 좋으며 오랜 기간 쓸수 있는 배낭식분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강서분무기공장은 이러한 과학기술적성과에 기초하여 꾸려지게 되였다.

당조직의 믿음에 의하여 공장지배인으로 사업하게 된 리효욱동무는 로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생산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지휘하였다. 강서구역당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농업생산과 련관되여있는 이 공장의 생산공정을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공장이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공장에서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는 이 분무기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방도를 역시 과학기술발전에서 찾고 실천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였으며 설비개건을 위한 기술준비사업도 콤퓨터로 진행하면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나라의 《왕》들이 누리는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혜택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3억여L의 콩우유 생산, 콩우유차들이 지구둘레를 354회나 돈것과 같은 거리 주행

인민의 리상을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은혜로운 손길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더욱 뜨겁게 미치고있다.

후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품에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보육받고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건강과 영양관리까지도 국가의 따사로운 보살핌속에 있다.

대규모의 어린이영양식료품전문생산기지로 전변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지금까지 3억여L나 생산하여 수도의 탁아소, 유치원들과 소학교, 중학교들에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주고있다.

콩우유차들이 평양시내 탁아소,유치원, 학교들을 찾아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연 1 415만여㎞로서 지구둘레를 354회나 돈것과 같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 조국에서처럼 당과 국가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의 튼튼한 성장을 위해 장수식품으로 이름난 콩으로 우유를 대량생산하여 영양학적요구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매일 공급해주는 나라는 없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을 피우며 즐겨기다리는 《콩우유시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관,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가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제일 좋은것을 다 어린이들에게 주고있습니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은 백두산위인들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끝없이 베푸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정화이며 증견자이다.

젖제품가운데서도 영양가가 독특하여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콩우유가 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되게 된 잊지 못할 사연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일찌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것만큼 그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에 어린이식료품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 주체68 (1979) 년에는 영양우유직장도 꾸려 아이들에게 생산공급하도록 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은정은 끝이 없었다.

주체73 (1984) 년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초원에 흐르는 젖소떼를 바라보시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유를 마음껏 먹일수 있겠는가를 구상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에 돌아오시여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경성에서 소집하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축산조건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콩으로 우유를 만들기 위한 혁명적조치가 취해져 주체75 (1986) 년부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콩우유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첫 콩우유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너무도 기쁘시여 수화기를 드신채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구절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의 정은 영양음료와 함께 행복동이들의 몸으로 따뜻이 흘러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콩우유를 많이 생산공급하시기 위해 대해같은 은정을 끊임없이 베푸신것은 조국청사에 위대한 사랑의 전설로 수놓아져있다.

주체81 (1992) 년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 꾸려진 현대적인 콩우유생산기지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결정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중요대상건설을 앞세우며 콩우유생산을 뒤로 미루려는 일군들의 관점도 바로잡아주시고 생산설비에 대한 자료도 몸소 찾아 보내주시였으며 콩우유시제품맛도 친히 보아주시였다.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도 마음껏 먹이고 제일 좋은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어야 마음을 놓을수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뜨겁게 굽이친 어머니사랑이였다.

콩우유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 풀어주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콩우유종합가공설비들을 공장에 일식으로 갖추기 위해 특별비행기까지 날았다.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언제나 신선한 콩우유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랭동설비들과 보관용기들도 마련되였으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원자재를 가지고 이해 6월 1일 어린이들의 명절을 계기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세대들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여 영양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흡수력이 제일 좋은 시간을 공급시간으로 정해주시고 수도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콩우유를 동시에 먹을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사랑의 《왕차》로 정답게 불리워지고있는 은정어린 콩우유전문수송차들이 정연하게 세워진 공급체계에 따라 수도의 거리들을 달리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으며 시내의 모든 도로들에서 콩우유차들에 대한 우선적이며 즉시적인 통행질서가 새롭게 세워졌다.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생산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된 가슴뜨거운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이 치렬하고 나라에 한g의 쌀, 한W의 전기가 귀한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만은 절대로 그늘이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의해 콩우유생산공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국방위원회 명령이 하달되였다.

이에 따라 당적, 국가적인 특별대책이 세워져 인민군대의 수송대가 원료를 운반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지고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창고에만은 원료가 가득가득 쌓이였으며 전기와 증기도 중단없이 보장되여 겹쌓인 시련속에서도 콩우유생산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1. 2배로 늘어났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첫해인 주체90 (2001) 년의 잊지 못할 7월 8일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신 길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신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어버이수령님의 념원대로 우리 아이들을 부럼없이 키우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콩우유가 정상적으로 생산공급된데 대하여 료해하시고 이것이 실지 우리의 사회주의가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공장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이런 어린이식료품공장을 더 많이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에서는 콩우유생산공정이 최신종합가공설비들로 갱신되고 다른 공정들도 기술개건되여 콩우유와 함께 애기젖가루, 영양암가루 등 수십가지의 질좋은 어린이식료품들이 대량생산되고있으며 최신식의 콩우유가루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능력확장공사가 지금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과 국가의 조치에 따라 전국각지에도 콩우유생산기지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평성시, 청진시, 원산시, 구성시, 대홍단군, 북창군, 허천군, 청단군 등 각지에서는 도, 시, 군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들이 원료보장으로부터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직접 책임지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선차로 즉시에 풀어주는것이 하나의 철칙으로 되고있다.

온 나라에 《자랑도》로 소문난 자강도에서는 강계시, 만포시, 화평군 송덕리를 비롯하여 시, 군 그리고 리들에 이르기까지 콩우유생산기지들을 꾸리고 도내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공급하고있다.

진정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매일 어길수 없는 일과로 콩우유차들을 반겨맞는 조국의 현실은 지구상의 수억만 어린이들이 《자선》과 《복지》의 간판밑에 영양실조로 시들어가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후대들의 영양관리까지 나라에서 도맡아 보살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야말로 인류가 바라는 리상사회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하기에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참관하는 외국인들은 당과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비롯한 영양식료품들을 생산보장하는데 대해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혜택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아이들의 《왕국》이며 그 미래는 창창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예로부터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하였다.

공부할 걱정, 치료받을 걱정, 쓰고살 걱정을 모르게 해주는 사회주의혜택속에서 은정어린 《콩우유시간》을 친근하면서도 례사롭게 맞고보내며 성장한 복받은 우리 새 세대들은 다 자란 오늘에 와서야 생명의 젖줄기로, 숨결로 받아온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고마운것인가를 격정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아버진 **김정일**장군님이시며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온 세상에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인류의 후대보육력사에서 하나의 혁명과도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우리 조국의 《콩우유혜택》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강성대국의 년대기에 아로새기며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중국국가라지오영화TV방송총국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8일 전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라지오영화TV방송총국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조중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판문점지역에서의 군사적도발행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에서 미제침략군측에 항의통지문 발송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을 계기로 이 땅에서 또다시 제2의 6. 25를 재현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핵전쟁계획을 끊임없이 수정완성하면서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전쟁수단들을 조선반도에 들이밀고있다.

특히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데 이어 그 무슨 《응징》과 《보복》, 국제공조하의 《제재》를 떠들면서 기어이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판문점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완전무장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것은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려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8일 미제침략군측에 다음과 같은 항의통지문을 내보내였다.

미군측은 6월 26일 7시 25분경 판문점회의장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반입하는 위반행위를 감행하였다.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있는 회의장구역에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는것은 엄중한 군사적충돌을 목적한 계획적인 도발행위이다.

우리측은 미군측이 6. 25를 계기로 괴뢰들을 사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전야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면서 그 발화점을 찾고있는데 대하여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

미군측의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측의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통지하게 된다.

1. 미군측은 판문점회의장구역에 대한 도발적인 중무기반입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끌어들인 중무기들을 전량 즉시 철수하여야 할것이다.

2.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측은 판문점회의장구역에서 강도높은 군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지난 60년전의 쓰라린 참패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페막

【사리원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제36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가 페막되였다.

경기대회에서 청소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학과학습을 잘하는것과 함께 과외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련마한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중학교부문 축구경기에서는 청진시 수남구역 수남중학교 남자선수들과 평양장경중학교 녀자선수들이, 실내축구경기에서는 평양통흥중학교 남자선수들과 평양동대원중학교 녀자선수들이, 배구경기에서는 평양관문중학교 녀자선수들이, 마라손경기에서는 재령군 재천중학교 남자, 녀자선수들이, 탁구경기에서는 평양6월9일통북중학교 남자선수들과 평양광복거리중학교 녀자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소학교부문 축구경기에서는 사리원시 경암소학교 남자선수들과 리원군 포항소학교 녀자선수들이, 실내축구경기에서는 사리원시 상매소학교 남자선수들과 사리원시 신흥소학교 녀자선수들이 1위를 하였다.

페막식이 28일 사리원에서 진행되였다.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되였다.

중국국가라지오영화 TV방송총국대표단 도착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전진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국가라지오영화TV방송총국대표단이 2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문화참사가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중국 산동성친선대표단 귀국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산동성위원회 비서장 왕민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산동성친선대표단이 2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자

전투목표수행과 《송풍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경공업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로동신문》 지상연단을 통하여 여러 단위들에서 거두고있는 혁신적성과들에 대한 소식과 경험적인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우리 신의주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김철의 호소에 높은 생산성과로 화답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온 나날들을 긍지에 넘쳐 돌이켜보군 한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금까지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년간계획완수자의 대렬은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열풍속에서 공장의 전투력은 나날이 강화되고있으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 기세로 나아간다면 우리 공장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높은 생산성과로 떳떳이 맞이할수 있게 된다.

김철의 호소에 접하였을 때 우리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릴 각오에 넘쳐 올해 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1. 2배 높이 세웠다.

현존로력과 설비를 가지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천을 짜내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신심에 넘쳐 전투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 일군들이 대고조의 불도가니에 비약의 열풍을 뿜어주는 송풍기가 된다면 반드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때 우리가 간직한 신념이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확증해보이였다.

높이 세운 올해전투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모두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누구나 천리마시대에 천생산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전세대 방직공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더 많은 천을 짜냄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어느 직장, 어느 작업반에 가나 생산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다. 생산현장들에서는 공장기동예술선동대의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날마다 높이 울리였으며 속보판들에는 매일매일의 전투소식이 실리고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비롯한 로력혁신자들의 위훈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였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그대로 일터마다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는 열풍이 되였다.

공장일군들의 송풍기적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공장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갔다. 복생산기지와 지관생산기지, V형피대생산기지를 비롯하여 이미 꾸려놓은 자력갱생기지들이 은이 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든 결과 생산속도가 전에 없이 높아졌다. 공장일군들은 또한 현장에서 수리공들, 설비점검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설비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냈으며 수십대의 기대들을 되살려내여 만가동을 걸게 되였다.

정말이지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뛰니 온 공장이 함께 뛰였다.

《송풍기》에서 열풍이 세차게 뿜어져나오니 현장마다가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정방공, 직포공들속에서는 여러기대말아보기가 더욱 활발히 벌어지였으며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났다.

우리 공장의 이와 같은 현실은 어느 단위에서나 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다름아닌 일군들에게 달려있으며 일군들이 송풍기적역할을 바로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혁신과 비약이 일어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보다 분발하여 일하겠다.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더 많은 천을 생산해내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오늘의 연단을 통하여 굳게 결의한다.

신의주방직공장 지배인 리 철

진취적인 일본새, 혁신적안목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영광의 대지에 풍년농악소리 울려퍼질 10월을 기어이 불러오자.

이것은 우리 농장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결심이다.

지난해 가을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두벌농사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의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는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를수 있는 담보가 있다.

우리 농장에서는 올해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준비에 품을 들여 두벌농사성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농장의 모든 밭에서 두벌농사를 실속있게 하여 알곡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이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두벌농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농장에서는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였다.

올해 불리한 날씨조건으로 봄철영농공정이 처진것으로 하여 적기를 보장하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헌신분투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협동벌에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앞그루작물수확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 문제, 두벌농사의 적기보장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중소농기구준비,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기에 해제끼는 문제, 소석회와 흙보산비료, 거름을 착실히 준비하는것을 비롯하여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실속있게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이 선행되였다. 그에 기초하여 시범단위를 정하고 그 성과를 일반화하며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높여 모든 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담보를 착실하게 다지고있다. 그와 함께 로력조직을 보다 면밀하게 짜고들고 영농공정에서 설친데가 생기지 않도록 제때에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물거름판수를 위한 탕크와 관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것도 이런 사업의 결과였다.

우리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들메를 더욱 조이며 떨쳐나서고있다.

풍요한 가을을 위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드바삐 살자.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기어이 한드레벌에 풍년농악소리를 울리자면 순간의 답보나 만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자각이고 실천이다.

당이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방식이다.

뜻깊은 올해에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강성대국대문을 쌀로써 열어제끼자는것이 우리 농장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의 웨침이며 우리 한드레벌의 《산울림》이다.

드높은 애국의 열정과 기개를 안고 우리는 기어이 10월의 하늘아래 풍요한 금나락을 펼쳐놓을것이다.

대천군 은흥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 정 옥

기술혁신으로 비약의 길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고있는 우리는 지금 청량음료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청량음료를 더 많이, 더 질좋게!

우리는 김철의 호소대로 같은 원료, 같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는 질좋고 훌륭한것들을 내놓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왔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랭천사이다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공장적인 사업으로 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생산의 매 공정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기술혁신운동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사탕용액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쳐 생산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서 애로가 많지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고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가 합쳐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지난 시기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투쟁하여온 나날에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개발한 물연화설비를 만가동시켜 질좋은 사이다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

기술혁신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고 높이 세운 증산목표도 다름아닌 기술혁신을 무기로 하여 점령하자는것이 우리들의 결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기술혁명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에 필요한 갖가지 청량음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해나가겠다. 하여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겠다.

경련애국사이다공장 지배인 구 희 윤

북남선언들의 존중과 실천은 공화국의 원칙적립장

얼마전 우리 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은 6.15통일시대의 앞길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할 애국의 일념으로부터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북남선언들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할데 대한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면 련합성명에 지적되여있는것처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자주와 평화, 조국통일의 근본담보가 있습니다.》

현시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하는것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내외의 온 겨레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들이다. 북남선언들은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것을 밝힌 자주와 단합의 위대한 대강이다. 북남선언들에는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주체의 노력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주인은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며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민족을 대신할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에 극히 유해로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이 민족성원들의 머리속에 발붙일수 없게 하며 그들속에서 견결한 민족자주의식을 불러일으켜 온 민족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여 투쟁하게 하는것이 바로 북남선언들이다.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은 모든 민족성원들이 애국위업에 한몸바쳐나서게 하는 정신적원천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담겨진 《우리 민족끼리》리념은 겨레의 가슴에 조국애, 민족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면서 그들을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을 총집대성한 통일의 최고기치이다. 북남선언들은 새 세기 이전에 발표된 모든 북남합의들을 대표하며 더욱 완성시킨 최고의 절대적지위에 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사활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도 북남선언들을 대신할수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북남선언들은 과거의 북남합의들이 이룩하지 못한 상상할수 없는 사변적성과들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나온 10년간은 북남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유일무이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여야 하며 철저히 리행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양보할수 없는 원칙적립장이다.

북남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평화적립장과 대결전쟁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남선언들을 부정적으로 대하며 그 리행을 거부하면 동족대결과 북남관계의 파국을 피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의 리명박일당은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은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라고 헐뜯고 전면부정하였으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해 《배타적민족주의》, 《폐쇄적민족주의》로 모독하였다. 피뢰패당은 집권후부터 오늘까지 반공화국대결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북남선언들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지금 말로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떠들고있지만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선언거부자세와 립장은 결코 감출수 없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선언들을 최고의 지위에 놓고 적극 지지하며 최우선적으로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해나가지 못한다면 6.15의 고귀한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으며 나아가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미 지펴올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해야 한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은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며 그 리행의 길을 가로막는 역적패당의 반민족적범죄행위를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선언리행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북남선언들의 절대적지위를 약화시키려는 보수패당의 그 어떤 불순한 기도도 용납치 말아야 한다.

새 세기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길만이 조성된 난국을 뚫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평화와 통일의 광명한 길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며 북남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심 철 영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역적행위

남조선괴뢰들의 아프가니스탄재파병소동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7월초에 《오쉬노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계획을 세운 괴뢰들은 며칠전 그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면서 미제의 침략전쟁에 괴뢰군사병들을 대포밥으로 섬겨바치는 추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이 《반테로》의 명목밑에 이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패권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침략전쟁, 몸서리치는 살륙전쟁이다. 더우기 그곳은 지금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죽음의 땅으로 화하였다. 남조선의 이전 당국도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파견하였었지만 괴뢰군은 반미무장세력의 공격대상으로,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희생물로 되였고 남조선민간인들이 랍치,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일어났다. 결국 남조선당국은 아프가니스탄파병무력을 전부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짐승도 한번 빠졌던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비극으로 막을 내린 아프가니스탄파병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지금 재파병에 거리낌없이 나서고있다. 이것은 친미사대주의와 외세추종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리명박역적패당만이 저지를수 있는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매국역적행위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이 보기 드문 친미사대《정권》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상전을 찾아가 《가장 슬기로운 외교는 미국에 국익을 맞추는것》이라느니, 《범세계적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발라맞추면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재파병요구를 서슴없이 받아들이였다. 괴뢰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공적개발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고 더 많은 돈을 《추가비용》으로 들이밀겠다고 하는것은 그들의 광고대로 그 무슨 《재건》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침략전쟁을 재정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속에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12월 각계의 강력한 항의규탄을 무릅쓰고 《국무회의》라는데서 무장직승기와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무장장비들과 수백명의 괴뢰군무력과 경찰병력 그리고 민간인들을 파견한다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파병동의안》을 꾸며냈다. 이어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이 참가한 가운데 15차의 《파병준비위원회》와 14차의 《파병준비실무위원회》를 열며 분주탕을 피웠다. 아프가니스탄재파병을 위해 괴뢰들이 벌린 이러한 놀음들은 꼬물만한 민족적자존심도 없는 미국의 철저한 주구,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쓸개빠진 매국노로서의 리명박일당의 추악한 반민족적정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돌격대로 발벗고나선것은 상전의 지지와 환심을 얻어 권력을 유지하며 반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남조선의 청장년들이 미제의 침략전쟁터에 내몰려 죽음을 당하든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저들의 정치적야망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것이 보수패당의 흉악한 속심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희세의 친미주구, 미국의 전쟁머슴군의 타고난 본성은 어데 갈데 없다.

민족안에 역적패당을 둔탓에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 실로 막심하다.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46명의 괴뢰군사병들을 죽이면서까지 반공화국모략극을 꾸민 역도패당이 이제 전체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핵전쟁제물로 만들지 않는다는 담보는 조금도 없다. 한조각의 민족적량심도 없이 미국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매국반역행위를 끊임없이 일삼는 리명박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이 발편잠을 잘수 없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과 남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가증스러운 친미사대매국노들을 하루빨리 력사의 심판장에 끌어내여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

엄 일 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였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이 비밀해제한 국가문서들에서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때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국방성은 우리의 단호한 자위적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0.2~10kt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로 북조선내 12곳을 타격하는 안》, 《10~70kt의 핵무기로 16개 비행장을 타격하여 공군력을 소멸하는 안》, 《북조선의 공격능력을 대부분 마비시키는 안》 등 세가지 공격안을 작성하여 백악관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 의하면 조선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중국동북지역의 여러곳을 핵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었다.

이것은 미국이 력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대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무기를 실지로 사용하려 했다는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된다.

지난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를 핵무기불사용대상에서 제외시킨 미국의 현 행정부도 우리에 대한 핵위협정책에서는 전임자들과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

력사적사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립증하고있다.

특히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심상치 않은 정세는 미국의 계속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주장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23일 글을 발표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글은 남조선에 틀고앉은 미군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 역시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조선서해상에서 합동전쟁연습을 한창 벌리던 때에 발생하였다고 글은 밝혔다.

글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미군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거머쥐고 점령군으로 행세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글은 세계에서 깡패행위로, 침략범죄로 이름떨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면서 이런 미국이 뻔뻔스럽게도 《인권》과 《평화》를 운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글은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당장 제땅으로 물러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1만명선언운동 전개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제주도의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괴뢰군당국의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25일 1만명선언운동에 돌입하였다.

단체들은 선언운동을 통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에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있는 군당국의 책동의 위험성을 폭로규탄할것이라고 밝혔다.

해군기지건설을 당장 중지시키고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15북남공동선언채택 1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 공동성명

6.15북남공동선언채택 10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동선언에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민족자주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우리 민족끼리》정신이 반영되여있다.

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리명박괴뢰역도는 《천안》호사건조작과 같은 반공화국책동으로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분렬을 고취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우리들은 미제와 리명박괴뢰도당을 반대하고 6.15공동선언의 리념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한다.

⁂ ⁂

6.15북남공동선언채택 10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로조련맹, 농민위원회,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조선통일지지 파키스탄위원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호르지부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파키스탄의 여러 사회단체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투적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공동선언발표는 조선의 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조치였으며 민족분렬 55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커다란 사변이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게 미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60여년동안 갈라져있지만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피줄, 하나의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궁지에 몰린자들의 비렬한 소동

얼마전 남조선괴뢰당국이 한 보수단체를 내세워 그 무슨 《친북, 반국가언동자》명단이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는데 이것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보수패당은 《천안》호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그것을 부정하는 《선동》을 하는 《친북, 반국가언동자》들이 있다고 고아대면서 이따위 망동을 부리였다. 이른바 《명단》이라는데는 정계, 학계 등 각계의 진보적인 인사 34명이 포함되였는데 그중에는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천안》호가 좌초로 인해 침몰하였다고 주장하여 군부패거리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신상철을 비롯한 전문가 11명도 속해있다고 한다. 괴뢰들은 이들이 그 무슨 《국론분렬과 사회분렬을 가중시켰다.》느니, 《북의 주장에 동조하고있다.》느니 하고 걸고들면서 그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하반기에 발표하게 될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 2차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올리고 앞으로 《친북, 반국가언동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할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날이 갈수록 저들이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바빠맞은 역적패당이 궁지에서 헤여나보려고 또다시 독재의 칼을 뽑아들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괴뢰들은 외세와 작당하여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한 때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하나 《북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썼다. 하지만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은 날이 갈수록 커가고 문제점들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특히 괴뢰당국이 그 무슨 《결정적증거》라고 내놓은것들을 과학적으로 부인하는 론박 못할 자료들이 남조선과 해외에서 련이어 제기되고있다.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들은 공동기자회견, 론평, 성명, 담화를 발표하여 함선침몰사건을 미국과 작당한 괴뢰당국의 《짜맞추기,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산물》로 단죄규탄하면서 당장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라고 들이대고있다. 얼마전에는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단체들이 함선침몰사건을 보수당국이 미국과 작당하여 꾸민 자작극으로 폭로하고 《북어뢰공격설》을 전면부정하는 서한을 미국의 동포단체들과 유엔에 보내였다. 이번에 보수패당이 발표한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그 누구의 주장에 《동조》한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민심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의 신조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정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함선침몰사건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 당황망조한 역적패당은 독재적본성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휘두르고있다. 괴뢰들은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한 민주로동당소속의 한 《국회》의원을 《명예훼손》혐의에 걸어 검찰에 고소하는 망동을 부렸는가 하면 인터네트게시판에 함선침몰사건을 《북과 련관》시키는것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주민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있다. 한편 함선침몰원인이 좌초라는것과 《어뢰추진부》에 있는 그 무슨 《1번》이라는 글자의 허위성을 과학적으로 주장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성원이였던 신상철을 수사하고있으며 지어 전 《청와대 정책실》 비서관까지 《허위사실류포》혐의로 박해하고있다. 당국의 폭압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얼마전 극우보수단체의 깡패들은 참여련대가 유엔에 함선침몰사건관련서한을 보낸데 대한 앙갚음으로 가스통과 신나병들을 자동차에 싣고 이 단체의 사무실에 달려들어 단체성원들에게 마구 폭행을 가하였다. 괴뢰공안당국도 참여련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안법》위반여부를 조사한다고 소동을 피우고있다. 이러한 속에 괴뢰당국이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친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흉심밑에 비렬하게도 악질보수단체를 내세워 《친북, 반국가언동자》명단을 발표했던것이다.

괴뢰들의 망동이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에 대한 반대여론을 폭력으로 철저히 봉쇄하고 사건의 진상을 언제까지나 흑막속에 묻어둠으로써 반공화국대결전쟁소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무지막지한 파쑈깡패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언론들이 《친북, 반국가언동자》명단발표놀음과 참여련대에 대한 탄압이 함선침몰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시대착오적마녀사냥》이라고 일치하게 단죄규탄한것은 우연치 않다. 사실들은 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로부터의 출로를 진실을 주장하며 대결과 전쟁을 반대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에서 찾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폭력으로써는 정의를 억누를수 없고 진실을 가리울수 없다.

도적이 제발 저리다고 괴뢰들이 《친북, 반국가언동자》명단을 발표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지만 그것은 함선침몰사건의 모략적성격과 함께 그것이 드러나는데 바빠난자들의 궁색한 처지만을 보여줄뿐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

판문점과 신천박물관 참관

【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2차 국제준비회의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청년학생련대성행사들에 참가한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일행,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이 28일 판문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친필비를 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정전담판회의장과 정전협정조인장, 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디아고 알렉싼드르 페라즈 비에이라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다. 미국때문에 조선이 둘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아직까지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세계민주청년련맹과 진보적청년학생들은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니달 아마르 아랍학생총동맹대표는 참관을 통하여 미제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미제가 아니였다면 군사분계선이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다. 미제는 전조선반도를 강점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책동을 벌리고있지만 패배를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헤페르쏜 까르데나스 야따꼬 에스빠냐공산주의청년동맹 대표는 친필비를 보고 **김일성**주석께서 조선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그이는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인민은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날 손님들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 대표들 판문점 참관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일군

신의주시 역전동사무소 사무장 송창일동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동사업을 잘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일군들가운데는 신의주시 역전동사무소 사무장 송창일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중이 신임하고 군중이 끕다고 하는 일군이라야 당에 충실한 일군이라고 말할수 있다.》

몇해전 동사무장사업을 시작한 송창일동무는 동의 곳곳을 돌아보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직업과 나이, 수준이 서로 다른 각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사업의 특성과 보다는 나날이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동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야 하겠다는 자각에서였다. 국경관문도시의 중심구역에 자리잡고있는 동이여서 더욱 그러하였다.

송창일동무는 동초급당비서 김덕만동무와 무릎을 마주하였다.

《주저할게 있습니까. 한번 배심있게 내밀어봅시다. 사무장동무야 제대군관이 아닙니까.》

송창일동무의 눈앞에는 청춘시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보람찬 군사복무의 나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큰 대회에 두차례나 참가하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행복한 나날이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새로운 힘과 용기가 북받쳤다.

(당에서 바라는 일에 물불을 가리랴. 오늘의 공격전에 제대군관인 내가 앞장서자. 그리고 군사복무의 그때처럼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자.)

송창일동무는 우선 동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른아침이면 어김없이 이동방송선전기재를 끌고 인민반들을 돌며 주민들을 불러일으켰으며 낮에는 낮대로 꾸리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작업장에 뛰여들고 저녁이면 다음날 전투를 위하여 선행작업을 맡아 해제꼈다. 종종 작업현장에서 새날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일하자니 힘이 들었다. 꾸리기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안타까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뛰고 또 뛰였다.

어려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정치사업을 벌리며 모든 일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늘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꾸리기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뛰여다녀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송창일동무는 자주 동주민들의 가정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제대군인인 안해와 그의 자식들도 송창일동무를 적극 도와나섰다. 그들의 아름다운 소행이 또한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송창일동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사무장을 진심으로 도와나섰다. 주민들이 부족되는 많은 자재를 마련하면서부터 꾸리기사업은 더욱 힘있게 진척되였다. 동사무소의 일군들과 주민들의 열의는 날을 따라 높아만 갔다. 그럴수록 송창일동무는 동일군들과 함께 이신작칙하며 앞채를 메고 달리였다. 공사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졌다. 동의 면모는 새롭게 일신되였다.

그 나날 송창일동무는 성과의 예비는 조직사업에 있고 힘은 군중에게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진리성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기세를 늦추지 않고 송창일동무는 인민반들을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는 사업에 주민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인민반장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송창일동무는 인민반장들을 적극 발동하여 그들이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동앞에 맡겨진 과업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역전동 5, 2, 15인민반들을 동적인 본보기로 내세운데 이어 짧은 기간에 14, 15인민반구간의 울타리를 모두 다시 쌓고 수백m에 달하는 동의 전반적인 물도랑들을 전부 새롭게 정리하였다.

올해에도 많은 나무를 심어 수림화, 원림화사업에서도 시적으로 앞장선 단위가 되게 하였다.

최근 몇해사이 몰라보게 달라지는 동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이 이렇게 달라질수 있는가고 동주민들에게 묻군 한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나 어렵고 힘겨운 전투를 벌려온 나날들과 함께 자기 동의 사무장 송창일동무에 대하여 자랑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군 한다.

《우리 사무장》이라 친근하게 부르며 이야기하는 주민들의 말속에는 송창일동무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이 어려있다.

동주민들만이 아니다.

주민들을 발동하여 농사일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농장의 농장원들도 송창일동무를 가리켜 《우리 농장일군》이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며 따른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그가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어떻게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나갔는가를 잘 알수 있다.

송창일동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민반원들을 발동하여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수많은 지원물자를 안고 포전으로 달려나간 송창일동무는 포전선전기재로 온 들판을 들끓게 하고있으며 이신작칙을 잘하여 손꼽히는 《모뜨기명수》, 《김매기명수》로까지 불리우고있다. 그의 뒤를 따라 언제나 일 잘하기로 소문난 동주민들도 당면한 영농공정별전투마다에서 단합된 집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이렇게 송창일동무는 당정책관철에서 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인민군대식으로 군중을 이끌며 언제나 뜨거운 인정미로 그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군 한다. 이런 일본새, 이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지니였기에 동주민들은 물론 주변농장의 농장원들도 그를 진심으로 따른다. 그럴수록 송창일동무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더 쓰고있다.

이처럼 《우리》라는 친근한 부름속에 사는 송창일동무가 바로 당에 진실로 충실한 일군인것이다.

본사기자

모략사건조작에 비낀 검은 속심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의문시하는 국제여론이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의 《동맹》강화와 《협력》을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 차관보는 미국과 남조선은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하여 《완전하게 동맹》하고있다느니, 현 정세는 미국남조선《동맹강화의 결정적순간》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며 광기를 부리였다. 여기에 남조선괴뢰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동맹관계의 역할을 세상에 보여줄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줴쳐대는 망발들에는 이번 《천안》호사건이 무엇을 노리고 조작된것이며 그 막뒤에 어떤 흉계가 숨겨져있는가를 시사해주고있다.

미국남조선《동맹》은 침략적인 군사동맹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영구히 하고 괴뢰들을 침략전쟁의 돌격대로 써먹기 위해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조작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미국은 수십년동안이나 남조선을 틀어쥐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을 거대한 핵기지로, 병참기지로 전변시켜놓았다. 미국의 대남조선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런데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는 어성버성한 관계가 조성되고 그로 하여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존재감이 지난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미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반환》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대미리탈경향이 커지고있다. 남조선에 친미주구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기는 하였으나 반미자주흐름은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미국이 큰 기대를 걸었던 리명박《정권》은 민심의 배척을 받으며 수세에 빠져들고있다. 이것은 미국의 남조선강점통치를 위태롭게 만들고있다.

조선반도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수로 보고있는 중국과 로씨야와 잇닿아있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선반도가 미제의 침략적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요충지라고 하면 남조선은 그들이 직접 발을 디디고있는 군사적발판이다. 남조선을 놓치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대조선전략은 물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전초기지를 잃는것으로 된다. 그만큼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실현에서 남조선이 차지하고있는 전략적지위와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상실당하게 되면 그 존재가치는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미국은 남조선과의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그것을 통하여 저들의 군사적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있다. 이를 위해 조작해낸것이 바로 《천안》호사건이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조작으로 남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얽어매놓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은 미국의 전쟁하수인으로 완전히 전락되였다. 일본의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도 미국의 의도대로 전격타결되였다. 일본은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협력》을 다짐해나서고있다. 그런가하면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였다. 《천안》호사건을 리용하여 미국은 남조선괴뢰들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주물러대고있다. 여론들이 평하는바와 같이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갈수록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간섭명분이 커지고 미국남조선《동맹》강화에 박차가 가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조작하는 충격적인 모략사건에는 언제나 전쟁의 검은 그림자가 뒤따랐다. 지금 조선반도정세가 그렇게 흐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동맹》강화를 제창하는것은 한갖 위세를 돋구기 위한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조선전쟁도발로 전조선을 집어삼키려는 미국의 검은 속심이 비껴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천안》호사건의 《조사결과》를 의문시하는 국제여론을 무시하고 그 책임을 한사코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국제적모략공세를 집요하게 벌리면서 남조선과의 관계를 저들이 의도하는대로 이끌어가고있다. 미국남조선《동맹》강화야말로 극히 위험한 사태발전이다.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우리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미제가 이번 사건을 구실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그 무슨 《동맹》강화와 《협력》을 떠드는것은 전쟁전주곡이나 같은것이다.

조선전쟁발발 60년과 때를 같이하여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은 범상히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한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에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제2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미적대적감정을 총폭발시킬것이다. 그것은 미국남조선《동맹》관계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력사적인 장거로 될것이다.

남조선과의 그 무슨 《동맹》강화를 떠들면서 제2조선전쟁도발을 꾀하는 미국의 서툰 연극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조작의 내막을 솔직하게 사실그대로 털어놓고 우리에게 전면사죄하며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백 문 규

시대착오적인 행위

얼마전 일본외상은 그 누구의 《위협》을 걸고 《일미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였다. 그는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힘만 가지고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낼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한다.》느니, 《일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견해는 새 정권에도 그대로 계승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였다.

일본의 대외정책을 책임진 외교당국자의 발언이 바로 이 정도이다. 사고방식이 삐뚤어지지 않은 정객이라면 《미국의 힘을 빌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엉터리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것이다.

미일동맹강화는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에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침략적군사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넓히고있다. 미국이 《미일동맹강화》를 구실로 일본과 조선반도주변에 대규모타격집단을 전진배비하고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려놓는것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정세는 항시적으로 긴장상태에 처해있다.

일본은 명백히 아시아에서 위협의 주요근원이며 지역나라들의 군사적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자국령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놓고있는 일본이 안보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로는 대미추종립장을 버리고 자국령토에 대한 미군주둔을 끝장내는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외교당국자는 대미의존심에 사로잡혀 거꾸로 주일미군이 있어야 일본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는것처럼 주장하고있다.

그만이 아니다. 현 일본집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미관계강화》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대미추종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려는 일본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지금 일본의 민심은 주일미군철수를 강경하게 요구하고있다.

주일미군은 일본에서 불행의 화근이다. 주일미군에 의한 범죄, 환경오염 등은 말할수 없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털어낸 세금의 적지 않은 몫을 주일미군유지비로 상전에게 계속 섬겨바치고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국민은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있다. 최근 몇달어간에 오끼나와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지역들에서 주일미군철수운동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것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국민의 반감이 어느 정도로 격화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집권자들은 그 누구의 허구적인 《위협》을 걸고 《일미동맹강화》를 떠들기 전에 제 나라 민심부터 똑똑히 알고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제 나라 민심도 모르고 정치를 하겠다는것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후덴마미군기지를 오끼나와현밖에 또는 국외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하였던 하또야마정권이 끝내 민심을 배반하고 미국에 굴복한탓에 단명으로 끝나고만것은 일본정객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교훈으로 된다.

일본집권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있다. 미국에 맹목적으로 아부굴종하는 나라는 세상에 일본밖에 없다.

일본집권자들이 종속적인 일미동맹관계를 계속 지탱해나간다면 일본은 미국상전의 하수인의 처지에서 언제 가도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리 경 수

《현대문명》의 비극적산물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은 입만 열면 자본주의는 《현대문명의 표본》이요 하고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망각한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교육실태 하나만 놓고보자.

몇년전 영국신문에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실리였다.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성인 20%, 지구가 태양주위를 하루에 한바퀴 돈다고 생각하는 미국성인은 17%…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미국의 문명정도, 교육수준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수자들이다. 우의 문제들로 말하면 지구상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있어야 하는 초보적인 상식이고 학교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자연의 리치이다. 그러나 미국에는 자연현상은 고사하고 제 나라 글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그런 자료를 꼽자면 많다. 몇년전 미국에서 일류급으로 꼽히는 죠지타운종합대학을 방문하였던 일본의 한 국제문제전문가가 한 말을 아래에 소개한다.

《어느날 나는 버그스랜이라는 한 대학생과 면담하였다. 동방력사가 전공이라는 그에게 미국헌법의 어느 조항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었다. 그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수요에 따라〉라는 헌법조항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였다. 순간 나는 놀라움이상의 충격을 받았다. 명문대학에서 〈일류급교육〉을 받고있다는 대학생이 세인들이 다 알고있는 맑스의 명제를 미국헌법의 한조항으로 알고있다는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그가 받은 충격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남북전쟁이 언제 있었으며 아메리카대륙이 언제 발견되였는지 모르는 대학생들이 적지 않았고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카나다를 미국의 한개 주로, 아프리카대륙을 한개 나라로 알고있는 한심한 형편이였다.

죠지타운종합대학은 력사에 있어서나 교육시설과 교수진영, 교육내용에 있어서 일류급이라고 뽐내는 대학이다. 이런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적수준이 이 정도이니 일반학생들의 실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최근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미국학생들의 대부분이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일본을 찾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미 미국의 연구협회들이 미국에서 교육의 질이 가장 잘 《보장》된다고 하는 주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 경우에도 발전도상나라들의 학생들보다 기초지식수준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학생들의 지식수준이 한심한 현상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매한가지이다. 일본대학생들의 지리지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조사에 참가한 44%의 학생들이 지도에서 이라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졸업생이랍시고 사회에 진출하여 정계, 사회계, 실업계에서 활약하게 될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교육은 나라의 선진성과 문명정도, 앞날을 좌우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말끝마다 《현대문명》을 자랑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 해가 도는지,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는 무식쟁이들이 욱실거리고있으니 자본주의사회를 21세기의 암흑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의 한심한 교육실태는 썩고 병든 사회의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식교육, 서방식교육은 인재육성보다도 황금만능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약육강식의 생존원리체현자들을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학교들에서 배워주는 과목들마다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것은 철저히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이다.

퇴폐적인 교육속에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정신도덕적으로 부패타락한 오작품학생들이 생겨나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한창 공부할 나이의 학생들이 일찌기 배움을 포기하고 거리와 골목들에서 빈둥거리며 허송세월하는가 하면 마약과 알콜 등에 물젖어 배움의 열망을 잃고 부패변질되고있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영국에서 해마다 대학생들이 알콜람용에 탕진하는 돈이 무려 9억 4 000만£에 달하고있는데 이것은 공부하는데 필요한 책들을 사는데 쓰는 돈보다 거의 3배나 많은것이라고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들중 73%가 마약 및 알콜을 한번이상 사용하였으며 그중 30%가 이미 마약 및 알콜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에 있다.

한편 자본주의사회의 악성종양인 《폭력문화》는 신성한 교정에도 침습하고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배움터가 아니라 범죄의 란무장으로, 온갖 사회악의 서식장으로 전락되고있다. 실례로 2003—2004학년도에 일본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감행된 각종 폭력범죄건수는 무려 3만 5 000여건에 이르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어린이 3명당 1명이 범죄의 길에 뛰여들고있다고 한다.

제반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야말로 교육의 불모지이고 전도가 암담한 세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 영 희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도로건설

중국 길림성에서 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해 도로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성에서는 앞으로 5년동안에 장춘시와 길림시 등 여러 도시와 지역을 련결하는 도로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 기간 고속도로는 1 400여km 건설되게 된다 한다.

우주비행선 발사

로씨야의 바이꼬누르우주발사장에서 16일 국제우주정류소를 향해 우주비행선 《쏘유즈 TMA—19》호를 발사하였다.

비행선에는 우주에서 장기간 일하게 될 승조원들이 타고있다 한다.

이 우주비행선은 국제우주정류소계획에 따르는 100번째 비행을 하게 된다.

민족어교육

잠비아정부가 민족어교육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최근년간 어린이들이 민족어로 말하고 글을 쓰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안을 새로 작성하고 초등교육부문에 적극 도입하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공용어인 영어와 함께 민족어교육을 의무적으로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한다.

공업생산 증대

파키스탄에서 올해 4월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59% 증대되였다.

19일 이 나라 신문이 이에 대해 밝혔다.

관개면적 확장

에티오피아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관개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최근 각지 농촌들에서 109만 870ha의 부침땅에 관개시설을 새로 건설해놓았다.

그리하여 알곡소출을 더 높일수 있게 되였다 한다.

나라에서는 관개면적을 확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

천연가스매장지 발견

이란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천연가스매장지가 새로 발견되였다.

이곳의 천연가스매장량은 2조 1 900억ft³에 달한다 한다.

21일 이 나라 신문 《테헤란 타임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여러 나라들 협조

파키스탄과 이란이 13일 두 나라사이를 련결하는 천연가스수송관건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중국과 짐바브웨는 군사분야에서 협조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12일 중국과 까자흐스딴은 무역, 경제분야에서 협조를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공동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본사기자

중국 미국의 비난을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인민페환률정책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회 의원들이 인민페환률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에 무역제재를 실시할것을 주장해나선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견결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이 덮어놓고 남을 비난할것이 아니라 자체의 경제구조에 존재하고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인민페환률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구실로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는것은 론리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개시 69돐 기념

로씨야에서 위대한 조국전쟁개시 69돐에 즈음하여 22일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로씨야대통령 드미뜨리 메드베제브가 크레믈리성벽결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로씨야련방평의회와 국가회의 의장들, 정부성원들, 군지휘관들, 사회단체대표들이 전쟁로병들, 각계층 시민들과 함께 화환진정식에 참가하였다.

이어 명예위병대의 열병행진이 있었다.

또한 뽀클론나야산에 있는 위대한 조국전쟁중앙박물관에서는 력사적사변들에 대한 외곡행위를 폭로단죄하는 학술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에서 조기를 띄우고 무명전사묘들에 화환과 꽃송이들을 진정하였으며 전사한 쏘련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다시 안장하는 의식 등 여러 행사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 움직임을 둘러싼 로미마찰

최근 뽈스까령토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종합체전개를 둘러싸고 로미사이의 마찰이 표면화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5월 23일 100명의 미군과 《패트리오트》미싸일발사대가 로씨야의 깔리닌그라드로부터 60㎞ 떨어진 뽈스까북부의 한 군사기지에 도착하였다.

이를 두고 미국의 AP통신은 미군이 앞으로 2년간 이 나라에 주둔하면서 뽈스까군인들에게 《패트리오트》미싸일체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고 전하였지만 군사전문가들은 그러한것이 뽈스까에 대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의 한 고리이고 현지주민들과 다른 나라들의 반응을 타진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여러 종류의 탄도미싸일들을 요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패트리오트》미싸일종합체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요소로 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미행정부는 부쉬행정부가 추진하던 유럽미싸일방위체계전개를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다 방대한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미국방성 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전 미행정부의 미싸일방위체계범위는 유럽지역의 75%를 포괄하고있었으나 새로운 체계는 유럽 전지역에 대한 《보호》를 담보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을 들이밀고있는 미국은 그 서막으로 뽈스까에 대한 요격미싸일배비를 개시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로씨야의 커다란 불만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 알렉싼드르 그루슈꼬는 뽈스까에 《패트리오트》미싸일들을 항구적으로 전개하는것은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라고 언명하였으며 로씨야국가회의 의장 보리스 그리즐로브는 미국의 미싸일전개에 대한 대응문제가 토의되고있다고 밝혔다.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장 니꼴라이 마까로브는 유럽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할데 대한 미국의 계획들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로씨야는 만일 그것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새로운 전략무기축감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미국은 이란의 《미싸일위협》에 대처하여 이미 만수역과 아라비아반도에는 미싸일방위체계를 갖춘 《이지스》전투함선들을 그리고 바레인, 까타르, 쿠웨이트, 아랍추장국련방에는 요격미싸일체계를 전개해놓았다고 밝히고 미국의 새로운 미싸일방위체계는 명백히 로씨야를 반대하기 위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로씨야에서는 미국의 위협적인 책동에 대응하여 깔리닌그라드주에 《이스깐제르》미싸일들을 전개하자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한편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패트리오트》미싸일배비가 로씨야에 아무런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고집하고있으며 뽈스까는 그것이 순수 방위를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대해 로씨야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시종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한다.

관측통들은 미싸일방위체계문제를 둘러싼 로미사이의 모순관계가 앞으로 더 심화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

이란대통령 마호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한 담화석상에서 꾸바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꾸바정부와 인민이 미국의 침략책동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란은 꾸바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

수리아부대통령 파루끄 앗샤르아가 22일 이란방문과정에 한 회담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 유엔안보리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또다시 통과시켰지만 그것은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려는 이란인민의 투쟁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꾸바에서 13일과 14일 《세계급혈자의 날》에 즈음하여 급혈깜빠니야가 진행되였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이번 깜빠니야에는 5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한다.

급혈사업

14일 이 나라 보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고대도시유적 발견

에짚트의 닐강삼각주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땅밑에 묻혀있던 고대도시유적이 발견되였다.

지금으로부터 3 500년전에 건설된것으로 보이는 이 유적에서 거리와 살림집, 사원, 항구자리 등이 나타났다.

발견된 유적은 당시 력사와 도시건축예술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된다 한다.

본사기자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공범자

얼마전 이스라엘폭격기들이 사우디 아라비아령공통과를 허용받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고있다. 그도 그럴것이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여 려객기도 아닌 이스라엘폭격기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령공을 뻐젓이 항행할수 있게 되였는가.

영국의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스라엘폭격기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북부지역 상공을 통과하는것이 허용됨에 따라 이스라엘폭격기들의 비행거리가 더 짧아지게 되였다. 이것은 모두 미국무성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다.》

이스라엘폭격기의 사우디 아라비아령공통과허용에는 이스라엘의 권모술수와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타격을 노리고 빈번히 폭격기들의 장거리비행훈련을 벌려왔다. 이스라엘군용기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지중해로부터 지브랄타르해협까지 장거리비행훈련을 진행하였다. 지중해를 거쳐 지브랄타르해협까지의 거리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란까지 거리의 몇배에 달한다. 군사평론가들은 이스라엘군용기들의 장거리비행훈련목적이 이란을 공격하자는데 있다고 평하였다.

이스라엘은 저들군용기들의 장거리비행거리를 단축할 심산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령공통과를 추구하였다. 물론 이스라엘로서는 국교관계가 없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령공통과허가를 받아내는것이 조련치 않았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미국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란의 핵문제를 걸고 이 나라에 제재와 압력을 들이대고있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선택안이 탁우에 놓여있다고 위협공갈하고있다. 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리인으로, 돌격대로 써먹자는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미국회의 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소유하는것은 용납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대이란공중타격위협을 제창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흉계밑에 이스라엘의 청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스라엘폭격기의 령공통과를 허용해줄것을 요구하였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미행정부와 군부의 고위인물들이 꼬리를 물고 사우디 아라비아에 날아들었다. 그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계획과 최신정보등을 알려주었다. 이스라엘폭격기의 사우디 아라비아령공통과문제도 론의되였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미국의 협력으로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우디 아라비아령공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할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이스라엘폭격기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령공통과를 허용받은것은 이스라엘의 이란공격계획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공모하에 이란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면밀히 갖추어놓았다.

최근 한 외신은 미중앙군사령관이 지난해 9월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나라들에 자기 관하의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하는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비밀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명령서에는 이란의 핵계획과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군사적공격을 지원할수 있도록 정탐작전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공모결탁밑에 이란의 《핵무기개발저지》를 구실로 내들고 임의의 시각에 대이란군사적공격을 단행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시사해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이란압살책동은 이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이란은 자기 나라의 평화적인 핵계획을 터무니없이 《핵무기개발》로 걸고들면서 자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위협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지난 7일 이란의 텔레비죤방송은 자기 나라의 핵물리학자를 촬영한 록화물을 방영하였다. 록화물에는 핵물리학자가 2009년 6월 사우디 아라비아의 메카를 순례하던중 미국정탐기관에 의해 랍치되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었다. 이 록화물은 지난 4월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 록화한것이라고 한다. 록화물이 공개되자 미국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인물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그를 랍치하였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랍치혐의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의 론리는 누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 미국이 랍치의 능수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다. 빠나마를 불의에 침공한 미제가 대낮에 이 나라 국가수반을 체포한것을 비롯하여 그들이 감행한 랍치범죄는 수없이 많다. 지금도 미국은 《테로혐의자》라는 감투를 씌워 세계곳곳에서 죄없는 사람들을 랍치해가고있다.

이란은 자국의 핵물리학자에 대한 미국의 비렬하고 추악한 랍치행위를 폭로배격하면서 반미, 반이스라엘대결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있다. 국제사회는 침략과 간섭, 평화와 안전파괴행위를 일삼고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조 성 철

ㄱ-01113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